미술문화론

프란시스 베이컨의 의식 세계

절망을 안고사는 인간의 진실표현

Ⅰ

'인상파와 근대미술명품전'(가나화랑개관 100주년 기념전, 1993년 3월3~20일)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정보와 소통공간 그리고 경제교류 등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세계화의 중심부에 들어선지 오래다.

특히 미술분야의 국제화도 느리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해외작품전시회가 이제 국내에서도 친숙하게 열리고 있고, 해외의 작품구입도 제한된 범위내에서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허용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더구나 근래에 유수국내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외저명미술관이나 화랑과 협력하여 미술사적 맥락을 지닌 작품들을 직접 대하게 된다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전시회는 19세기 후반의 인상주의로부터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 앵포르멜, 트랜스아방가르 등 근·현대미술사의 주요이즘과 유파들의 작가 30여명을 참여시키고 있었다. 이 중에는 신과 색채가 열정적인 아펠(K. Appel, 1921~), 기계와 인간·생물과 무생물의 공존을 다룬 레제(F. Léger, 1980-1955), 초현실주의 작가 달리(S. Dali, 1904-1989), 두터운 미띠에르 효과로 사회비판적 시각을 미화시킨 부오(G. Rouault, 1870-1958), 환상적 꿈과 사랑을 그린 샤갈(M. Chagall, 1887-1985), 불안과 초조를 예술 속에 도입한 에른스트(M. Ernst, 1891-1970), 대담한 색채의 자유스러움을 보여준 드쿠닝(W. De Kooning, 1904~) 등 유수의 작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의 관심을 더욱 끈 것은 작년에 작고한 영국 출신의 작가 프란시스 베이컨이었다. 이 기회에 그에 대한 일별을 통하여 그의 예술세계에 보다 가까이 가보려 한다.

Ⅱ

베이컨은 190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영국인 양친사이에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들은 그가 화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15세 되던 해 집을 떠나 파리에서 살롱장식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 곳에서 파카소 전시에 큰 감명을 받기도 했다. 20세에 런던으로 돌아와 근대가구 디자이너를 하다가 그림으로 전업했다. 이 동안에 거의 교육다운 교육도 받을 기회가 없었고, 부유하는 방랑자처럼 살았다. 그 자신은 일정한 색깔이 없이 자주 변하였다. 그의 빛나는 눈과 감각스러운 입에 비해 조용한 앨토목소리는 수줄은 그의 성품에 어울린 듯 했다. 그는 삶의 무목적성과 무의미함에 줄곧 시달린 듯한데 어느날 비평가 친구에게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그 사이이 무목적성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에 대한 감각을 잃고 무목적성과 무의미로 방황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지고 회망은 사라져 버렸다.

Ⅲ

이 무렵에 나온 것이 그의 유명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Crucifixion)로 이는 당시 영향력있던 미술평론가 리드(H. Read)에게 주목받고 호평받아 그의 저서 '아트 나우'(Art Now)에 실리기도 했다. 이는 괴발벅이된, 철저하게 비초월적인 그림으로 마치 예수는 고기덩어리 이거나 심자가를 기어 내려오는 벌레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까지 부를수는 없더라도 엄청나게 비관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 그림을 두고 "종교적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 인간의 비극, 동물같은 인간의 절망을 그린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푸줏간의 덩어리 돼지살, 일그러진 얼굴, 도살장 풍경, 절규하듯 고함치는 인간 등의 모습, 텅 빈 공간에 토막을 이어 놓은 듯 누워있는 인간의 모습을 자주 그린다. 그는 "우리는 살덩어리에 불과하다. 우리모두는 잠재적인 송장이며 시체이다. 나는 사실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거침없이 내뱉는다.

그의 그림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잔혹하고 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잔혹미술'의 창시자라고 부른다. 과연 그의 그림은 추하고 잔인하기만 한가?

나는 이번 전시회에 걸린 베이컨의 '방에 있는 인물'작품을 보면서 내가 일상 베이컨에 대해 갖고 있던 통상의 관념에 이의를 갖게 되었다. 그의 그림은 한마디로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며 아름다운 색감으로 고도의 회화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일굴과 인물의 부분들이 부서져 있을 뿐이지 그것조차 정성스런 고도의 숙련으로 가꾸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기실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것은 진인이 아니라 허무와 죽음 그리고 절망을 안고 사는 인간의 진실이었으며, 그 형식도 아주 정련된 방법을 쓰고 있음을 발견했다. 요컨대 심상(imagery)의 불안한 본성과 심상이 표사하고 있는 소재들의 감각적 호소 사이에 갖는 대결과 긴장을 보여주려는 것이 그의 회화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인간의 불안과 절망, 부패와 그것들을 제시하는 창엄스러운 방법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에 비해 그 주변의 조용한 평화와 고독은 정서와 관념상의 오묘한 대비를 일으키며 우리를 긴장케 하고 거기에서 야릇한 미감과 위안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그림은 미술사적평가를 받을 것이 확실하지만 그를 어느유파 어느맥락, 어느 운동과 연계시켜 가태장기는 어렵다.

그는 현실주의자의 면모가 있는가 하면 입체파적 요인, 또는 전통적 기법까지를 이어받고 있지만 그를 딱부러지게 위상지우기는 어렵다. 그 자신이 자기 작품에 대한 해설은 아주 불신 했다고 한다. 아마 그 불확정성이 베이컨의 특징인지도 모르겠다. "가장 흥미로운 인간은 신념을 전혀 결한 인간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인간"이라는 그의 말은 그의 인간과 예술을 이해하는데 깊이 되새겨 볼만한 어귀인 것 같다.

◇'Figure with Meat' 캔버스에 유채 1~8.8×120cm 1954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송장이며 시체"

화가로 성공하고도 기이한 생활 계속

도 허무와 좌절감에 늘상 시달렸던 것도 이런 어린시절의 불행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그가 화가로서 성공하여 그림이 수백만불을 호가하는데도 기이한 생활은 계속되었다. 담요로 창문을 가린 비좁고 너절한 칠실과 거실을 작업실로 함께 쓰는 좁은 방, 일상의 친구를 사용하는 조명, 벽과 창문을 빠렛트로 대용하는 그의 화실은 마치 쓰레기통과 같았다.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는 초라한 선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기가 일쑤였는데, 외모도 때로는 대조적이어서 비싼 잠바에 싸구려 구두를 신고 머리염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일 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를 실존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의 젊은 시절의 대부분도 전쟁의 폐허 같은 분위기와 정신적 삭막감 속에서 보냈다. 그의 런던 생활은 제1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폭력속에서 보냈으며 1927~8년은 베를린에서 그리고 제2차대전 발발까지는 파리에서 살았다. 뿐이킨뿐 아니라, 1, 2차 대전 후에 모든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었으며 미력있던 미술평론가 리드(H. Read)에게 주목받고 호평받아 그의 저서 '아트 나우'(Art Now)에 실리기도 했다. 이는 괴발벅이된, 철저하게 비초월적인 그림으로 마치 예수는 고기덩어리 이거나 심자가를 기어 내려오는 벌레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까지 부를수는 없더라도 엄청나게 비관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 그림을 두고 "종교적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 인간의 비극, 동물같은 인간의 절망을 그린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푸줏간의 덩어리 돼지살, 일그러진 얼굴, 도살장

이 석 우
〈문리대교수·사학〉

연재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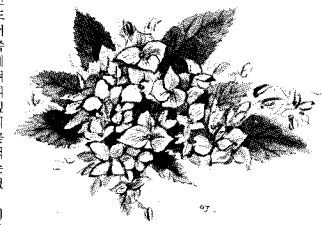
水菊 필 하루 〈1〉

글:김도형(국문·4) 그림:김진우(미교·3)

지대 비치 받은 지 꼬박 다섯 달이 되도록 그 꽃 이름을 몰랐다.

내무반 막사를 따라서 길게 이어진 꽃밭에는 모두 다 네 가지 꽃나무가 있었는데, 그 꽃나무만 처음 보는 것이었다. 허리 쯤 올라온 키에, 한지 위에다 쪽빛 물감을 살짝 튕어드린 듯한 꽃잎 마다에는, 그 옴기가 제각각이었다.

아스팔트 위에서 줄곧 자라온 나는, 여러 가지 꽃나무를 구경할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꽃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 꽃나무 오른쪽 겨드랑이께에 곧게 서 있는 봉선화며 왼쪽 어깨잡에 피어난 분꽃의 꽃잎이 분홍과 빨강의 단색인 것처럼, 꽃잎은 오례히 한 색깔만 칠해져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



정비공장에서 제품 바지를 잘라 만든 반비지가 내무반에 속속 들어올 무렵 꽃잎은 차례차례 피어나면서 물이 들었다. 꽃 이름은 꽃밭 담당 동기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수 있었지만 그만 두기로 했다. 성깔 사납기로 소문이 자자한 고참들에게 괜히 말한마디 잘못 걸었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성 싶었다.

이제 갓입병단 놈이 고참한테 별 질문을 다 한다는 둥, 질문하는 태도가 영 빼딱하다는 등, 제할 일도 제대로 못 하는 놈이 별 것에 다 신경을 쓴다는 둥……. 괜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궁금증을 풀고 싶은 마음은 터럭 만큼도 없었다. 입대동기 윤두에게 물어보았자만 녀석도 머리털 나고는 처음 보는 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꽃 이름을 꼭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때가 되면 알기 쉽어도 알게끔 되어 있어서 궁금증을 붙어 두었다.

바통 및 동기가 꽃밭 담당이 되던 날 아침은 내무반장의 앙칼진 심팔번으로 시작됐다.

"모포 각 접었어. 안 접었어. 내가 훌쳐 때는 삼분간에 점호 집합하는 태도 짤끝이 각 접었어. 근데 너희 놈들은 도대체 뭐야. 눈썹 휘날리게 뛰어다니도록 해력."

팔굽혀 펴기부터 시작해서 토끼뜀뛰기, 김밥말이, 선착순 등등 예의 얼차례를 돌린것은 뭔에 박힌 일이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입에서 단내가 풀풀 풍기고, 두 다리는 풀려서 오금이 다 저렸다. 떡심 좋린 쫄병들은 통신대 박스카에 등을 기대고 줄 나란히 앉아 담배 한 대 씩을 물었다.

누가 던졌는지, 돌멩이 하나가 허공에 포물선을 그렸다. 가슴에 붉은 벌을 단 나무 인형의 찌여 히니 벌려진 입 사이로 퉁 소리를 내며 정확하게 꽂혔다. 툭 불거진 두 눈과 어깨까지 축 처진 혹이 웰스럽게 을씨년스러웠다.

"아뮤래도 오늘 밤에는 내무반장을 넘길 것 같은데…."

꼭두새벽부터 치연하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싫어서 내가 운을 뗐지만 누구 하나 받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알고 있지만,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다는 표정이었다.

쫄병들은 '보직이동' 때의 숨막히는 분위기를 무엇보다 싫어했다. 보직 이동할 때가 되면 왕고참들은 은근히, 중고참들은 앞장 서서 내무반 분위기에 살얼음을 깔았다. 살얼음판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 가야 하는 쫄병들의 심정은 그저 죽을 맛이었다.

아침 식사와 체육이 끝나고 종이 울렸다. 보직이동이 있다는 것이었다.

내무반의 큰 행사는 대개 일석 점호 뒤에 치루는 게 관례였는데, 전에 없는 아침 시간에 일을 벌었다. 서무계 선임인 강병장이 푸른색 내무반장 견장을 달고, 식기당번은 지것지것한 식기로부터 해방되고, 그 밑으로도 이틀때면 한 자리씩 승진을 한 셈이었다.

바로 윗 동기도 내무반 밑바닥 청소를 면하고 드디어 꽃밭 담당을 물려 받게 되었다.

꽃밭 담당은 좋을 것 하나 없는 보직이었다. 서무계나 식기당번이 누리는 권리는 단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꽃밭을 가꾸고 무사히 지켜야 하는 의무 투성이었다. 매일 아침 꼬박꼬박 물주랴, 김매랴, 병충해 막으랴…. 성가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달리 피해 갈 길은 없었다. 두 눈 꾹 감고 밑 동기에게 물려 주는 날까지 목욕히 버티는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다음주에 계속〉

문화단신

장산곶매 영화학교

'오/ 꿈의 나라', '단힌 교문을 열며' 등의 16미리 영화를 제작해 온 장산곶매가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영화학교를 개설한다.

먼저 '영화에 대한 얼두개의 질론'이란 주제 아래 1학기 강좌가 오는 30일에서 6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설된다.

구회영('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 세가지 것들' 저자), 정성일(영화평론가)씨 등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영화인들이 강사로 출연, '우리는 어떻게 영화를 읽을 것인가?' 등 12강좌를 강연한다.

한편 영화학교는 1학기 강좌 외에도 여름특강 등 4개 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장산곶매(596-0324), 문예아카데미(745-6471)

노동자극회 아침 공연

노동자극회 '아침'은 제3회 정기공연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께 새 집 다오'를 3월의 매주 토요일에 신촌노동문화원 소극장(867-6128, 869-5859)에서 상영한다.

이번 공연은 건축현장을 무대로 하여 일용노동자들의 삶의 현실과 그 속에서 겪는 삶을 위한 치열한 갈등을 소재로 하며, 희곡은 회원들이 공동으로 완성했다.

'아침'은 지난 91년 1월에 8명의 노동자가 축축이 되어 조직한 극회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현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고 있다.

극단 현장 예술 특강

극단 '현장'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대학문화패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작, 연출 특강'을 개설한다.

무대극과 마당극/현실주의 창작대도 등 연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예술관 정립을 위한 풍부한 시례로 연극의 실제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

극단 '현장'은 지난 88년 창단 이래 건강한 노동자 문화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횃불', '노동의 새벽' 등 연간 2백50회 이상의 왕성한 공연활동을 해왔다.

문의:현장 762-7320, 766-2240, 743-1266

문밖 사람들 정기공연

문리대 연극부 '문 밖 사람들'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크리윤관에서 아서 밀러작 '세일럼의 마녀들'을 공연한다.

'세일럼의 마녀들'은 전체주의에 휩쓸되어 가는 한 개인의 비극적 삶을 그려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조명해주고 있다. '문 밖 사람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혼탁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연재소설 작가의 말

한 때 나를 뛰어나 곤혹스럽게 만든 질문 하나가 있었다. "너 요즘 소설쓰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누가 너는 뭘 하느냐"라고 물으면 "소설 쓴다다"라고 또박또박 대꾸했으니 웅당 받을 수 있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쩌다 한 번씩 몇 자 끄적거리다 포기하고 만 파지들이 있을 뿐,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가 찍힌 소설은 단 한 편도 없었다.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 찍힌 소설을 갖고 보니, "너 요즘 소설 쓰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조금요"라고 머리를 긁적이며 대꾸하곤 한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내 소설에 가지는 결벽증에 대한 반성

질문 하나가 나를 난처하게 한다. "넌 왜 작품을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솔직히 내 손으로 쓴 소설을 다시 읽어보면, 밤 새워 쓴 연애 편지를 아침에 읽어보는 듯한 심정이 된다. 기분이 이런 다음에야 "넌 왜 작품을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넙죽 소설을 내밀 용기가 날 리 만무하다.

'수국 핀 하루'가 마음에 썩 들어서 내놓는 것은 전혀 아니다. 못 마땅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잘 아는 한두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소설을 싣게 된 것은, 마침 대학주보의 제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내 소설에 대한 결벽증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정도 작품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라는 극단적인 비판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결심한 다음에야 설익은 작품이라도 내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수국 핀 하루'는 매우 소박한 이야기다. 세상의 눈길을 전혀 끌 수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삶의 교훈들을 나는 잊을 수 없었고, 그것을 별다른 수식없이 담담하게 그렸을 뿐이다. 그 교훈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내 소설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

귀중한 지면을 여투어 준 대학주보에 감사드린다.

김 도 형
〈국문·4〉

좋은 책 만들기 반세기 동아출판사
문의 : 02) 863-0791

한 단어의 여러뜻을 알기쉽게 -「동아프라임 영한사전」

한번 본 단어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사전, 과연 그런 사전이 있을까요?

한 단어의 한가지 의미만을 외우려 든다면 그 기억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한 단어에 담겨 있는 여러가지 뜻을 쉽게 쉽게 설명해 놓은 사전이 바로 동아프라임영한사전 - 굳이 외우려 들지 않아도 한단어의 여러뜻을 읽다보면 연상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해, 그것이 영어실력의 기본입니다.

동아프라임영한사전은 단어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학습사전'입니다.
단지 한 단어의 여러 의미들 나열해 놓은 사전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의미변천과정과 어원을 통해 알기 쉽도록 해 주는 동아프라임영한사전 같은 '학습사전'은 없었습니다.
이해시켜주는 학습사전, 그래서 남는 것이 다른 동아프라임영한사전을 한 번 만나보십시오.
어휘력의 왕도가 여기 있습니다.

- '92년 최신자료에 따라 과학, 기술, 국제정치, 군사, 의학, 시사, 경제분야 최신 5,000여 단어를 엄선,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 대사전에 육박하는 방대한 내용(17만 어휘).
- 국내 최초로 컴퓨터 조판, 인쇄하여 정확한 내용과 선명한 인쇄.
- 기본어에 살아있는 용례, 문법, 어법의 해설 추가.
- TIME, NEWEEK 등 시사잡지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장르별 분류 수록(부록).

3판 발간 5,000 최신어휘 추가

입학을 축하합니다!

동아 프라임영한사전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